



신체상 및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척도 개발

Development of Sexual Avoidance Scale Based on Body Image and Relationship Anxiety

국혜윤 (국립나주병원 임상심리사)

Hey Un Kook

Clinical Psychologist, Naju National Hospital

윤가현¹⁾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부정적 신체상(A) 및 관계 변화의 불안(B)에 따른 성 회피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척도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문항들의 적합성 검토 후 A 척도 20 문항과 B 척도 5문항을 선정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n=664$)를 토대로 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A 척도는 '이성과의 만남 회피' 및 '성관계 회피', B 척도는 '관계목적 불안' 및 '관계지속 불안'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A 척도의 두 요인에서 각각 .88 및 .86이었고, B 척도의 두 요인에서는 각각 .69 및 .52였다. 개발된 A 척도의 구인타당도 확인을 위해 신체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A 척도의 두 하위요인 모두 체형과 관련된 외모존중감 척도, 체중존중감 척도와는 모두 상관이 유의미했다. 또 A 척도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 회피가 더 심했다.

주요어: 성 회피행동, 신체상, 이성과의 만남회피, 성관계 회피, 관계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report scale measuring sexual avoidance behavior based on body image and relationship anxiety. After confirming face validity of primarily selected items, 20 items of body image and 5 items of relationship anxiety were selected for the scale. The scale was administered to 664 university students. As a result of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 factors were extracted in each subscale (body image, relationship anxiety), respectively. The construct validity was tested by correlation analysis among factors of body image subscales with the factors of the 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and the result was quite acceptable. Finally, gender differences were confirmed in body image. That is, women avoid sexual things than men due to negative body im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exual avoidance scale development and its theoretical bases.

Key words: Body Image, Relationship Anxiety, Sexual Avoidance Behavior, Sexual Avoidance Scale

1) 교신: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ghyoun@jnu.ac.kr).

성 회피와 성 혐오 장애

연인관계의 커플이 만나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성관계를 갖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만남에서 성욕이 생기더라도 성행위 자체를 회피한다. 성 회피(sexual avoidance)란 개인이 성적 자극이나 상황 또는 성행위 기회 등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동이다(Rocque & Cioe, 2011). 또 이는 성 혐오(sexual aversion)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지만(Katz, Gipson, & Turner, 1992; Rocque & Cioe, 2011), 혐오는 태도 그리고 회피는 자발적 의지와 관련된 행동 측면에서 구분된다(Banner, Wipple, & Graziottin, 2008).

그 두 용어의 관계는 DSM의 성 혐오 장애(sexual aversion disorder) 정의를 보면 더 확연하다.²⁾ DSM-IV-TR에 의하면, 성 혐오 장애란 성행위를 심하게 싫어하거나 능동적 회피행동이 지속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그 주요 특징은 성적으로 자극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이나 공포, 고통 등을 느끼는 것인데, 성 혐오가 심한 사람들은 키스나 애무와 같은 행동은 물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까지 회피한다. 그들은 자신이 혐오하는 성적 자극에 노출될 경우 경미한 상태의 불편함으로부터 심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데, 이러한 성 혐오 때문에 이성과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며 또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 상황이나 성행위 대상도 피한다(Brotto, 2010).

성 혐오가 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성경험 빈도가 훨씬 더 낮아 간혹 성욕 감퇴 장애(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로 오인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장애이다. 성 혐오 장애는 성적 접촉에 대한 공포, 혐오 및 회피의 특징을 보이지만, 성욕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다(Katz 등, 1992). 그 반면에 성욕 감퇴 장애는 성적 자극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보다도 성욕의 결핍이나 부재

상태에 관련된 장애인데, 일반적으로 호르몬 결핍, 약물 부작용, 불안, 우울, 파트너 관계에서의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요인들에 기인한다(Rosen & Leiblum, 1995).

성 회피의 원인

성 회피행동은 왜 나타나는가?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크게 6가지(성 학대경험, 사회 문화적 통념, 불안, 관계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신체상, 임신이나 성 전파성 질환의 두려움)인데, 각 요인과 성 회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 학대경험. 여러 연구들은 성 혐오가 심한 대다수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적으로 학대나 폭력, 착취를 심하게 당했음을 보고한다(Leonard & Follette, 2002; Staples, Rellini, & Roberts, 2012). 성 학대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성행위 전이나 도중에 과거의 학대 기억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하여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초래되거나 증가한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성욕을 억압하면서 살아간다(Walser & Hayes, 2006).

그들은 성적 억압 때문에 흥분이나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성의 긍정적 측면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려움만 지속적으로 느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에 관련된 자극은 불쾌감 등의 부정적 정서와 강하게 연합되는데, 이 부정적 정서가 싫은 사람들은 성 회피행동을 의도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피행동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그들은 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Staples 등, 2012).

사회 문화적 통념. 성 회피행동은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성욕을 함부로 발산해서는 안 된다는 통념 속에서 살아왔다(장필화, 1991). 이러한 이유로 성 회피는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성욕을 억압·통제시키지

2) 성 혐오 장애는 2013년 5월 발간된 DSM-5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신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연관되는데(권석만, 2003), 억압과 통제를 위한 노력에는 성적 자극의 회피,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성적 자극의 무시 등이 포함된다. 또 이러한 통념 때문에 일부 여성은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욕구를 극단적으로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Baumeister, 2000; Meston, Heiman, Trapnell, & Paulhus, 1998).

물론 이러한 통념으로 인한 여성들의 성 회피는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 심지어 양성평등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근래에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또 서구 여성들보다 동아시아 여성들이 아직도 성행동에 대한 죄의식도 더 큰 편이며(Woo, Brotto, & Gorzalka, 2011), 특히 한국의 경우 가부장제 영향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여성은 수동적이고 정숙해야 한다.’는 관념을 수용한다(고재순, 2009). 따라서 여성은 성욕의 발산 자체가 정숙한 여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장필화, 1991). 또 억제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보면 억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성 회피행동이 유발된다(권석만, 김지훈, 2000).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인적인 성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들은 여성마다 성적 개방성에 따라 성행동 제한 범위가 다를 것을 발견했다(Brotto, Chik, Ryder, Gorzalka, & Seal, 2005; Meston & Ahrold, 2010). 또한 성이나 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에 의하면, 개방적 태도를 지닌 여성들은 성행동의 성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성도 남성만큼 성욕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보수적 태도의 여성들은 여성의 성행동 제한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또 여성의 순결도 강조했다. 남성들의 경우 성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물론 개방적인 사람들조차 전통적인 남성상을 지니면서 여성의 성욕 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Yost & Zurbriggen, 2006).

불안. 여러 연구들에서 성행동과 일반적인 불안 사이의 관련성이 드러났는데(Copper, 1969),

예를 들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남녀 모두 성적 흥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흥분이 되더라도 고조 상태에 거의 이르지 못한다(Palace & Gorzalka, 1990). 또 불안은 성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불안이 극심한 사람들은 성욕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극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Minnen & Kampman, 2000). 특히 대인관계에서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 파트너 수가 더 적었고, 성관계 빈도가 더 낮았으며, 또 성 문제도 더 심했다(Leary & Dobbins, 1983).

신체기능 측면의 불안도 성 회피와 관련된다. 일부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는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수행불안이란 성행위 파트너를 만족시키려는, 성행위를 잘 수행하려는 욕구를 말한다(Wincze & Carey, 1991). 수행불안으로 인하여 조루나 발기부전이 초래되기 때문에 성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제한·회피하게 된다(Loudon, 1998). 여성들의 일부도 성기부위의 통증 때문에 성행위 회피 경향을 보인다. 즉 성교통증(dyspareunia)과 질경련증(vaginismus) 등의 연구에 의하면, 성기부위의 고통에 대한 문제들은 성적 욕구, 흥분, 오르가즘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행위 회피 경향도 심한 편이었다(Blink, Reissing, Pukall, Flory, Payne, & Khalife, 2002).

관계 지속성 여부의 두려움. 성 회피는 연인 관계의 지속여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나타난다. 새롭게 연인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성행위로 인해 두 사람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별의 계기가 될 수 있다(McCabe, 1987). 성행위 이후 연인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사랑이나 신뢰감이 부족할 경우 더 크다. 신뢰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언약이며, 이는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성행위 조건으로 사랑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신뢰감 부족 상태에서의 성행위는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를 성행위의 동기측면에서 설명하면, 남성은 성욕 발산이나 육체적 쾌락을 위한 성행위 추구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암묵적 언약 및 사랑의 표현 욕구에 의한 성행위 추구경향이 강한 편이다(Delamater, 1987).

이와 같은 언약이나 사랑의 표현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이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성행위의 동기가 낮아진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장기적 관계에 대한 기대 및 성행위 추구 동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누군가하고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절하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남성들은 주로 ‘No!’라고 답한 반면, 여성들은 주로 ‘Yes!’라고 답했다. 그리고 여성에게 거절의 이유를 질문했을 때 가장 빈번한 대답은 ‘사랑이나 언약의 부족’이었다(Carroll, Volk, & Hyde, 1985). 즉 여성은 사랑이나 신뢰감 부족을 지각할 경우 성행위 후 연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여성이 지각하는 정서적 연대감은 매우 중요하며, 파트너와의 정서적 결핍을 지각한 여성들은 그로 인한 불만족을 성행위 회피로 표현한다(McCabe, 2005). 또 그 불안은 연인관계의 장기적 지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혼전 성행위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사람과의 성행위를 피하게 된다(장필화, 1991).

부정적 신체상. 신체상(body image)도 성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상이나 매력은 문화적 통념, 가치관, 성경험 유무와 관련된다(Yamamiya, Cash, & Thompson, 2006). 신체상과 성적인 측면(예: 성적 만족, 성경험 빈도 등)의 관계는 표본이나 측정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나타난다(Wiederman, 2012). 즉, 부정적 신체상을 지닌 여성들은 성을 혐오했으며(Reissing, Laliberte, & Davis, 2005), 성 회피행동도 나타냈다(Lowery, Kurpius, Befort 등, 2005). 또한 남녀 모두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닌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대학생들보다 성행위 회피경향이 더 심했으며, 그 경향은 특히 ‘지나친 외모 중시,’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성행위 동안의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련성이 깊었다

(Rocque & Cioe, 2011).

성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신체상에 관련된 내적 요인으로는 두려움이나 낮은 자존감 등이 있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예, 난 똥똥한 편이다)이 지나칠 경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성행동 회피로 연결된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부정적 신체상을 지니기 쉬운데, 그들은 자신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속에서 성행동을 회피하게 된다. 또 이러한 회피는 성경험 빈도 감소 및 성기능 약화를 초래한다(Wiederman, 2000).

신체상과 성 기능의 관련성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파트너인가에 초점을 맞춘 전반적인 신체특성의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성기나 성감대 등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이다(Wiederman, 2012). 후자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많은 남성들이 자기 성기를 작게 지각하면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이 성 회피로 연결됨을 지적했다(Lever, Fredrick, & Peplau, 2006). 여성의 경우 성기보다는 가슴에 대한 지각이 성 회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자신의 가슴에 대한 불만족이 심한 여성들은 파트너 앞에서 신체노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아예 성생활이나 데이트 상황을 피하려 한다(Hoyt & Kogan, 2001).

임신 및 성 전파성 질환의 두려움. 임신에 대한 불안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이 극심할 경우 성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데이트 커플을 대상으로 성적 상호작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Peplau, Rubin, & Hill, 1997). 즉 임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된다. 아울러 임신 이외에 AIDS 등 성 전파성 질환의 감염 두려움도 성행위를 제한하게 한다(Leigh, 1989).

성 회피 측정

성 혐오 장애나 성 회피행동의 측정에 이용된

방법들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험 빈도 질문을 기초로 한 성 회피경향의 추정인데 (Minnen & Kampman, 2000; Wiederman & Hurst, 1998), 이를 통해서 성경험 빈도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성 회피가 더 심하다고 유추한다. 그러나 성경험 빈도가 낮은 것은 성 파트너의 접촉 기회의 결핍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성경험 빈도로 성 회피행동 경향성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Rocque & Cioe, 2011).

척도를 이용한 측정방법도 있으나 혼하지는 않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성 혐오 척도(Sexual Aversion Scale: SAS)가 있는데, 이는 성 회피의 원인이 되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성 혐오를 측정하는 도구이다(Katz, Gipson, Kearl, & Kriskovich, 1989; Katz 등, 1992). SAS는 5요인(성적 위험에 따른 불안, 성적 불안과 자의식, 성적 부적응, 질병 감염의 두려움, 및 어린 시절의 외상)의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AS 요인들 중 성적 위험에 따른 불안은 성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걱정을 반영하며, 성적 불안과 자의식은 성 혐오 요소인 과도한 불안 및 자의식을 측정하고, 성적 부적응은 Masters와 Johnson(1970)의 방관자화(spectatoring: 성행위하는 도중에 자신의 모습을 제3자처럼 바라봄)를 측정하며, 질병 감염의 두려움은 주로 AIDS의 두려움을 측정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외상은 아동기의 성 학대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SAS가 성 회피의 여러 원인들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지만, 전술했던 성 회피 관련 변인들 중 관계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두려움 및 부정적 신체상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체상은 외모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현대 사회에서 성적 매력이나 성 회피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마른 몸매의 유명인, 다이어트 광고 등은 모두 이상적인 외모와 성적 매력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더 느낀다(문정신, 2003). 게다가 한국사회는 서구나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권들과 비교했을 때 외모 중시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석, 김정식, 2007). 이러한 측면들은 신체

상이 한국인들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에도 신체상과 성 회피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많지 않다. Rosen 등은 신체상 회피 질문지(Body Image Avoid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신체상과 관련한 회피행동 경향성을 측정했다(Rosen, Srebnik, Saltzberg, & Wendt, 1991). 이는 자신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회피행동 상황들을 다루는 4요인(의복, 사회적 활동, 섭식 제한, 몸단장 및 체중)의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질문지에는 성 회피행동과 관련된 문항이 단 하나(나는 성교를 회피한다)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 신체상 때문에 의복으로 몸단장을 하는 행동에 치중되어 있어서 성 회피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 혐오 장애나 성 회피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신체상과 관련한 성 행동 연구는 가슴이나 자궁을 절제 수술한 여성들의 성적 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구자성, 1997; 장순복, 1988).

신체상 지각의 성차를 밝힌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 체형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걱정체중에 대해 이해 및 지각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했다(류호경, 윤진숙 1998; Richards, Boxer, & Petersen, 1990). 그동안 대다수 연구들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신체상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살폈지만, 실제로는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이상적인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다(Rocque & Cioe, 2011). 예를 들면, 최근 남성들의 성형수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도 남성의 외모 가꾸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정용민, 2011). 이러한 측면들은 남성들도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해 성을 회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 회피척도 개발

전술한 성 회피 원인의 6가지 영역들 중 성 학대 경험, 불안, 임신 및 질병 감염의 두려움 등은 SA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SAS는 부정적 신체상이나 관계 지속성 여

부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초점을 맞춘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또 성에 대한 태도나 성행동의 범주 및 비율에서 문화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인에 적합한 척도가 필요하다. 부정적 신체상은 성 회피행동을 유발하는 변인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Rocque & Cioe, 2011). 특히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상과 성적인 측면 사이의 관계를 살핀 연구가 거의 없다. 전술한 바처럼 가슴이나 자궁 수술 후 환자가 성행위를 회피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 회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관계의 지속성 여부도 한국 사회에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데, 이는 서구 대학생들의 성경험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의 비율이 남성 40.0%, 여성 8.1%라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낮은 상대와의 성관계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손애리, 천성수, 2005). 이는 한국인들이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때 대부분 파트너와의 관계(예, 약혼)를 고려함을 의미한다.

또 여러 연구들은 신체상에서의 성차를 보고했는데,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이 더 심함을 보여주었다(김혜원, 백화정, 1996; Mintz & Betz, 1986). 이는 부정적 신체상이 여성과 관련이 더 깊기 때문에 신체상으로 인한 성 회피행동의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시 전술했듯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외모관심은 신체상 연구에서 성차의 고려를 시사한다(김완석,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으로 인한 성 회피 척도의 성차를 살펴보고, 신체상에서의 성차를 확인함과 동시에 성 회피와의 관련성도 탐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정적 신체상 및 관계 지속성 여부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성 회피에 초점을 맞추고 성 회피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개발이었다. 연구대상자로는 신체상과 심리사회적 기능들의 다양한 측면들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남녀 모두를 포함시켰으며, 또 미혼자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중요

한 변인 중 하나인 파트너와의 관계 측면을 척도에 포함시켜 성 회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성 회피척도의 개발은 성 회피를 간편하게 측정하고 또 이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신체상 및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행동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타당도는 김완석(2007)의 신체 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변별 및 수렴 타당도를 확인했는데,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특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체기능, 외모, 체중 존중감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신체기능과 관련된 체기능 존중감보다 체형과 관련된 외모나 체중 존중감과의 상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의 성차도 탐색했다. 최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김완석, 2007; 정용민, 2011), 여전히 여성에게 신체상의 의미가 더 큰 실정이다(진은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각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며, 또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해 성을 더 회피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연구문제는 1) 신체상 및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2) 구성된 신체상 및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척도는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3) 개발된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는 타당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두 가설은 1)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각 하위척도들은 체기능 존중감보다 외모 및 체중 존중감과의 상관이 더 높다는 것, 그리고 2)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각 하위척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상으로 인해 성을 더 회피한다는 것이었다.

방법

척도 개발은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성 회피척도에 포함시킬 문항의 작성 단계, 둘째, 작성된 문항들의 적합성(예, 안면타당도) 검토 후 문항의 수정·선정 단계, 셋째, 선정된 문항들의 신뢰도 확인 및 하위요인의 추출 단계, 넷째,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 척도의 변별 및 수렴 타당도 검증 단계, 그리고 다섯째,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성차를 확인하는 단계이었다. 다섯 단계들 중 셋째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내용은 결과 편에 서술되어 있다.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문항 작성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신체상이나 성 혐오에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문항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했는데, 관련된 척도가 포함된 문헌으로는 Katz 등(1989)의 “SAS” 및 Mendelson, Mendelson과 White(2001)의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김완석(2007)의 “한국판 전반적 신체 존중감 척도,”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2007)의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 등을 참고했다.

또 척도에 포함시킬 문항들의 내용파악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한 대학교의 교양과목 수강생 159명(남성 84명, 여성 75명)을 대상으로 성 회피경험에 대한 두 가지 개방형 질문을 했다. 즉, “어떤 여성이 한 남성하고의 성행위를 불안해하거나 피하고자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과 “지금까지 자신이 성과 관련된 회피행동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쪽지에 익명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복수의 응답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여성의 성행위 회피 이유의 응답은 모두 198개(남:123, 여:75)였으며, 이들은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예, 부정적 신체상)되었다. 남성의 가장 빈번한 응답범주는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전체의 약 25.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신 및 질병

감염에 대한 불안’, ‘부정적 신체상(전체의 약 5.7%)’ 순이었다. 여성의 가장 빈번한 응답범주도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전체의 약 22.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 ‘불안’, ‘부정적 신체상(전체의 약 13.3%)’ 순이었다.

자신의 성 회피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157개(남성 71명, 여성 86명)의 응답을 얻었다. 남성의 가장 빈번한 응답범주는 ‘부정적 신체상(전체의 약 28.2%)’이었으며, 그 다음은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24%)’ 범주였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부정적 신체상(전체의 약 40.1%)’,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전체의 약 22%)’ 순이었다. 문헌연구와 질문지 응답을 토대로 성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문항작성 시 고려사항(예, 과거형 시제, 문법상 이중 부정 등)을 준수하면서 모두 46개(부정적 신체상 35개, 관계변화의 불안 11개)가 작성되었다(탁진국, 1996).

문항 적합성 검토 및 문항 선정

척도개발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작성된 문항들을 가지고 4명의 전문가(심리학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와 함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비롯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면서(의미가 광범위하거나 애매하여 혼동되거나, 중복된 문항들의 수정) 문항의 수를 25개(신체상 20문항, 관계변화의 불안 5문항)로 축소시켰다. 문항의 적합성을 조사대상자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25개 문항이 적힌 질문지를 50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문항 내용의 명확성이나 다의적 해석 가능성, 제안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물어보았다(이순목, 이봉건, 1995; 탁진국, 1996).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정된 후 최종적으로 정리된 25문항들의 내용은 <부록 1>과 <부록 2>에 들어 있다.

3단계.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3개 대학교의 남학생 292명과 여학생 372명(도합 664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20.96세($SD=2.00$, $Range=18-27$)로, 남학생($M=21.98$ 세, $SD=2.19$)이 여학생($M=20.16$ 세, $SD=1.39$)보다 연령이 더 높았고($F=171.00$, $p<.001$), 남녀 모두 이

성애자이면서 미혼이었다.

조사절차를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25문항의 설문지를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세 대학교의 남녀학생 760명에게 개별 또는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아가 소규모 집단(2-40명)으로 또는 1대1로 만나 연구 목적 및 설문지 응답요령,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한 후 설문지 조사에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설문지의 응답은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Likert식 11점 척도 상에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설문지 참여에 동의했다라도 중간에 응답하기 싫으면 중단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설문지 응답요령의 안내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총 76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이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지 작성을 하다가 중단한 80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연구의 목적이 이성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성애가 아니라고 표현한 16명의 자료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아 총 664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4단계.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한 대학교의 남학생 70명과 여학생 109명 총 179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21.45세($SD=1.66$, $Range=19-27$ 세)로, 남학생($M=21.96$ 세, $SD=2.05$)이 여학생($M=21.12$ 세, $SD=1.26$)보다 연령이 더 높았고($F=11.51$, $p<.01$), 남녀 모두 이성애자이면서 미혼이었다.

조사 도구를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는 개인이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성을 회피하고자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성과의 만남 회피’ 및 ‘성행위 회피’의 2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척도는 Likert식 11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0)’부터 ‘매우 그렇다(10)’까지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하여 성 회피가 더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각각 .88과 .85이었다.

타당도 검증은 김완석(2007)의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외모 존중감(6문항), 체중 존중감(3문항), 체기능 존중감(9문항)의 세 하위척도에 Likert식 4점 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하위척도 순으로 각각 .81, .84, 및 .86이었다.

5단계. 조사대상자는 3단계 및 4단계의 조사대상자를 모두 합한 경우였다. 이들은 남학생 362명과 여학생 481명(총 843명)으로 연령은 평균 21.07세($SD=1.95$, $Range=18-27$ 세)이었고, 남학생($M=21.98$ 세, $SD=2.16$)이 여학생($M=20.38$ 세, $SD=1.42$)보다 연령이 더 높았으며($F=168.49$, $p<.001$), 남녀 모두 이성애자이면서 미혼이었다. 또 조사도구로는 개발한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가 이용되었는데, 4단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결과

문항분석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행동 척도.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 및 요인분석에 의한 문항분석을 실시했다. <부록 1>에 있는 20개의 문항(3)들 중 응답자의 약 80%가 0 또는 1에 응답하여 평균 1점 미만이었던 1개 문항(19번 문항)을 삭제한 후 나머지 19개 문항을 토대로 문항-총점 상관이 .30 미만인 문항들 중에서 상관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하나씩 제외시켰다. 먼저 문항-총점 상관이 가장 낮았던 12번 문항(.05)이 삭제되었고, 다음으로 18개의 문항들 중 2번 문항(.09), 그 다음에는 17개 문항들 중 4번 문항(.09), 또 그 다음에는 16개 문항들 중 18번 문항(.26)이 삭제되었다. 네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문항이 더 이상 없었으며, 나머지 15개 문

3)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였음.

항을 요인분석에 활용했다(<부록 1> 참조).

척도의 문항 구성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우선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알아보았다. 부정적 신체상의 KMO 수치가 .93이었고 또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들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 주축 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에 의한 사각 회전(oblimin rotation)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1.0이상인 고유치를 참고하여 2개 요인으로 정했다.

척도의 2개 하위요인은 ‘이성과 만남회피’ 및 ‘성행위 회피’로 명명했다. ‘이성과 만남회피’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해 이성과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내용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행위 회피’ 요인은 자신의 신체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성 친구를 만나더라도 성행위를 회피하는 내용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이성과 만남회피 요인이 41.97% 그리고 성행위 회피 요인이 8.56%이어서, 부정적 신체상 척도는 전체 분산의 50.53%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이성과 만남 회피가 .88($n=664$), 그리고 성행위 회피가 .86($n=664$)이었다.

관계변화의 불안에 따른 성 회피행동 척도.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 및 요인분석을 통해서 문항분석을 실시했다.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는 5개의 문항들을 가지고 문항-총점 상관을 실시한 결과, 관계변화의 불안에 포함된 5개 문항들 모두 .30이상으로 각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했고, 따라서 총 5문항을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5개 문항들의 척도를 토대로 잠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우선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알아보았다. 부정적 신체상의 KMO 수치가 .67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했다. 주축요인분석에 의한 사각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1.0이상인 고유치를 참고하여 2개의 요인을 설정했다(<부록 2> 참조).

척도의 2개의 하위요인은 ‘관계목적 불안’ 및 ‘관계지속 불안’으로 명명했다. ‘관계목적 불안’ 요인은 성관계 후 연인이 자신과 사귀는 목적이 성관계를 위한 것인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행위를 회피하는 내용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지속 불안’ 요인은 성행위 후 연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성행위를 회피하는 내용들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목적 불안 요인은 전체 분산의 31.18%를 그리고 관계지속 불안 요인은 전체 분산의 10.23%를 설명하여 관계변화 불안 척도의 설명력은 41.41%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관계목적 불안이 .69($n=664$), 관계지속 불안 경우 .52($n=664$)로 나타났다.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에 비하여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경우 두 하위요인 모두 내적일치도가 다소 낮았는데, 특히 관계지속 불안 요인의 경우 더 낮았다. 따라서 이후 타당도 연구는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척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했다.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타당도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얻기 위해 신체존중감 척도(김완석, 2007)의 하위척도들(체기능 존중감,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2개의 하위요인(이성과의 만남 회피, 성관계 회피)은 체기능존중감하고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모두 -.12로 무의미), 외모 존중감(-.68 및 -.43으로 각각 $p<.01$) 및 체중 존중감(-.43 및 -.40으로 각각 $p<.01$)하고는 모두 부적 상관이 유의미했다. 이는 개발된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를 구성하는 부정적 신체상의 개념이 잘 측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차의 확인

부정적 신체상 척도의 요인 별 남녀의 점수를 <표 4>에 제시했으며,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했다. 하위요인 1인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한 이성과의 만남회피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는데($F_{1,843}=15.75, p<.001$),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해 이성과의 만남을 더 회피함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2인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한 성행위 회피에서도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는데($F_{1,843}=132.35, p<.001$), 이는 여성이 자신의 부정적인 신체상 때문에 성행위를 더 회피함을 보여준다.

논의

성 회피행동 척도의 제작

본 연구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및 연인과의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 회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성 회피는 개인이 성과 관련된 자극이나 상황 또는 성행위 기회 등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동으로 그 원인은 다양하다(Brotto, 2010; Katz 등, 1992). 그 다양한 원인들 중 하나인 부정적인 신체상은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회피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Rocque & Cioe, 2011).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도 역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성 회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신체상이나 관계변화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성 회피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 회피행동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척도개발의 연구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성 회피척도는 기존의 척도들이 측정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신체상 및 관계변화의 불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문헌 연구 및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문항을 작성한 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내용타당도 및 문항 적합성을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25개 문항을 선정하여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또 그 응답들에 대한 문항분석을 토대로 부적합한 문항들을 제거했다. 또 부정적 신체상 및 관계변화의 불안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두 요인씩 추출했다. 이들은 신체상 척도의 경우 ‘이성과의 만남 회피’와 ‘성행위 회피’ 그리고 관계변화의 불안 척도에서는 ‘관계목적 불안’과 ‘관계변화 불안’이었다.

그러나 요인분석의 결과, 신체상 척도의 몇 문항들이 두 요인 모두에 비교적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요인에 포함시킬 문항들의 구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은 남아있다. 또 구성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볼 때, 부정적 신체상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가 각각 .88 및 .86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관계변화의 불안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각각 .69 및 .52로 다소 양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들은 관계변화의 불안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추후 다른 표집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출된 요인의 타당도 및 성차의 확인

각 척도의 요인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신체상 척도는 ‘이성과의 만남 회피’ 및 ‘성행위 회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성과의 만남 회피 요인은 이성으로부터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두려움 때문에 이성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거나 이성 만나기 기회를 피하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성행위 회피 요인은 매력이 없다고 지각한 신체 노출할 경우 파트너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행위를

<표 4> 성별에 따른 부정적 신체상 점수

범주	하위요인		남성 (n=362)	여성 (n=481)	F
부정적 신체상	1	M	23.33	27.31	15.75***
		SD	14.03	14.67	
	2	M	16.29	25.75	132.35***
		SD	10.83	12.59	

*** $p<.001$

회피하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체상 지각으로 인한 이성과의 만남이나 성행위를 회피하는 구성개념은 기존의 신체상과 성 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들이다(Hoyt & Kogan, 2001; Wiederman, 2000).

변별 및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체상으로 인한 성 회피척도와 신체특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신체존중감 척도와 관계를 살핀 결과,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두 하위요인(이성과의 만남 회피, 성행위 회피) 모두 체형과 관련된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신체기능과 관련된 체기능존중감과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신체상과 관련이 있는 기존 이론들을 포괄하는 수렴타당도를 보임과 동시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포괄하는 변별타당도의 입증이다. 또한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두 하위요인이 신체존중감 하위척도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효과 크기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개발된 신체상척도의 두 요인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상으로 인한 성 회피척도에서 성차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신체상 지각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 및 성행위를 회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왜곡된 신체상을 지니고 있다는 대부분의 신체상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비조사에서 여성이 성행위를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이 답변을 바탕으로 척도 문항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척도에서 나타난 성차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개발된 성 회피척도를 남녀가 아닌 여성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감안하고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에서 나타난 성차의 원인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모에 대한 태도 형성에서 가족, 친구 같은 타인에 의한 영향력보다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고애란, 이수경, 2004), 이와 같은 매스컴의 영향(예: 다이어트에 대한 광고, 마른 연예인, 외모로 인한 불리한 대우) 등의 사회적 평판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의 다이어트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이정섭, 김병희, 정현철, 이성은, 2001). 즉 외모를 중시하는, 특히 마른 몸매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대중매체 등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마른 몸매를 이상형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이상적 몸매를 기준으로 자신의 실제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각할 때 부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부적응적인 신체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특히 자신의 부정적 신체상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 회피보다 성행위 회피 요인에서 성차가 더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학습된 여성의 성역할을 들 수 있다(Meana & Nunnink, 2006).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들은 성행위에서 그 제안자(initiator)이면서 행위 수행자(performer)의 역할을 맡았다. 즉 흔히 남성이 성행위를 제안하고 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행위 도중에도 주도권을 갖고 그 행위를 이끌어간다. 그 반면에 여성은 주로 남성의 성적 흥분을 유발시켜주는 성적 자극의 역할만을 담당했다. 따라서 여성은 파트너와 성행위 시 바람직한 성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상호작용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시각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게끔 성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은 여전히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대로 학습되며, 여성은 성적 파트너에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리고 파트너가 나의 외모에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신경을 남성보다 더 많이 쓰게 된다(Wiederman, 2012). 이러한 측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영향 때문에 신체상으로 인한 성 회피가 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체상에서 성 회피로 가는 구체적인 경로들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성 회피척도 개발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신체상 및 관계불안에 따른 성 회피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다. 그동안 신체상 지각이 성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신체상 연구들은 섭식이나 우울 장애에 주안점을 둔 것들이었다. 국외에서도 신체상과 성 회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은 시도되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척도 개발은 신체상으로 인한 성 회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초기의 시도이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연구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 회피의 개념을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성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 회피가 지속되면 개인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성 기능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Busson, Leiblum, Brotto 등, 2003). 아직 성 회피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척도 개발 연구는 성 회피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성 회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더 나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및 관계불안에 따른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문항들이 해당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척도 개발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내용타당도와 변별 및 수렴타당도 과정을 확인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준거타당도나 예언타당도를 확보해야 하고 또 다른 표본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척도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응답자의 반응 왜곡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성은 일반적으로 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항 작성 시 단순히 성행동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관리나 단순한 이성과의 만남과 관련된 성행동으로 질문했고, 또 어떤 사실보다는 개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역시 설문지 시행 시 응답자가 설문지에 답하다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중단해도 좋다고 설명하면서 반응 왜곡을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짓 보고를 통제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시켜 검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부정적 신체상과 관계변화의 불안에 따른 성 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 개발에 목적이 있었다. 부정적 신체상에 따른 성 회피척도의 경우 양호한 내적일치도를 나타냈으며, 타당도 및 성차 연구에서도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었으나 관계불안의 척도에서는 두 하위요인 모두 낮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계변화의 불안도 성 회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 영역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아직 성 회피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후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것으로 의의가 적지 않다. 이후 연구들을 통해 신뢰도를 보충하고 타당도를 확보하여 앞으로 연령별, 집단별, 대상별 척도의 수정판이 계속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애란, 이수경 (2004). 여고생의 신체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 존중감, 의복태도 형성 모델. *대학가정학회지*, 42, 189-203.
- 고재순 (2009). *남녀관계의 갈등과 단절의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자아성찰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사랑·이별 경험*

-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자성 (1997).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의 성지식과 수술 후 성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김지훈 (2000). *성기능장애*. 서울: 학지사.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231-253.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 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113-134.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 329-349.
- 김혜원, 백화정 (1996). 남녀 대학생의 신체상에 관련된 태도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 89-103.
- 류효경, 윤진숙 (1998). 일부 고등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 경험 및 체형과의 관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 202-209.
- 문정신 (2003).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애리, 천성수 (2005).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18, 73-100.
- 이순묵, 이봉건 (1995). *설문·시험·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서울: 학지사.
- 이정섭, 김병희, 정현철, 이성은 (2001). 여대생의 다이어트 경험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 596-609.
- 장순복 (1988).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필화 (1991).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제8호: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정용민 (2011). 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사회적 체형 불안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959-971.
- 진은희 (2007). 남녀 대학생들의 신체상 인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 67-74.
- 탁진국 (1996).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The Author.
- Banner, L., Wipple, B., & Graziottin, A. (2008). Sexual aversion disorders in women. In H. Porst & J. Buvat (Eds.), *Standard practice in sexual medicine* (pp. 320-324). Oxford, England: Blackwell.
- Baumeister, R. (2000). Gender differences in erotic plasticity: The female sex drive as socially flexible and responsive. *Psychological Bulletin*, 126, 347-374.
- Blink, Y., Reissing, E., Pukall, C., Flory, N., Payne, K., & Khalife, S. (2002). The female sexual pain disorder: Genital pain or sexual dysfun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1, 425-429.
- Brotto, L. (2010). The DSM diagnostic criteria for sexual aversion disorde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217-239.
- Brotto, L., Chik, H., Ryder, A., Gorzalka, B., & Seal, B. (2005). Acculturation and sexual function in Asian wom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4, 613-626.
- Busson, R., Leiblum, S., Brotto, L., Derogatis, L., Fourcroy, J., Fugl-Meyer, K., et al. (2003). Definition of women's sexual dysfunction reconsidered: Advocating expansion and revision.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24, 221-229.
- Carroll, J., Volk, K., & Hyde, J. (1985).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motives for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 131-139.
- Copper, A. J. (1969). A clinical study of "coital

- anxiety" in male potency disord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3, 143-147.
- Delamater, J. (1987).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scenarios. In K. Kelly (Ed.), *Females, males, and sexuality* (pp. 1-12). Albany, New York: SUNY Press.
- Fredrickson, B.,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Hoyt, W., & Kogan, L. (2001).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and peer relationships for males and females in a college environment. *Sex Roles*, 45, 199-215.
- Katz, R., Gipson, M., Kearl, A., & Kriskovich, M. (1989). Assessing sexual aversion in college student: The sexual aversion scal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5, 135-140.
- Katz, R., Gipson, M., & Turner, S. (1992). Brief report: Recent findings on the Sexual Aversion Scal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8, 141-146.
- Leary, M., & Dobbins, S. (1983). Social anxiety, sexual behavior, and contraceptive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347-1354.
- Leonard, L., & Follette, V. (2002). Sexual functioning in women reporting a history of child sexual abuse: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nd clinical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3, 346-388.
- Lever, J. Frederick, D., & Peplau, L. (2006). Does size matter? Men's and women's views on penis size across the lifespa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7, 129-143.
- Leigh, B. (1989). Reasoning for having and avoiding sex: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to sexual behavior. *Journal of Sex Research*, 26, 199-209.
- Loudon, J. (1998). Potential confusion between erectile dysfunction and premature ejaculation: An evaluation of men presenting with erectile dysfunction at a sex therapy clinic. *Sexual and Marital Therapy*, 13, 397-403.
- Lowery, S., Kurpius, S., Befort, C., Blanks, E., Sollenberger, S., Nicpon, M., & Huser, L. (2005). Body image, self-esteem, and health-related behaviors among male and female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612-623.
- McCabe, M. (1987). Desired and experienced levels of premarital affection and sexual intercourse during dating. *Journal of Sex Research*, 23, 23-33.
- McCabe, M. (2005). The role of performance anxiety i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exual dysfunction in men an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2, 379-388.
- Masters, W., & Johnson, V. (1970). *Human sexual inadequacy*. Boston: Little, Brown.
- Meana, M., & Nunnink, S. E. (2006).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cognitive distractions during sex. *Journal of Sex Research*, 43, 59-67.
- Mendelson, B., Mendelson, M., & White, D. (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 90-106.
- Meston, C., & Ahrold, T. (2010). Ethnic, gender, and acculturation influences on sexual behavio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179-189.
- Meston, C., Heiman, J., Trapnell, P., & Paulhus, D. (1998).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and sexuality self-reports. *Journal of Sex Research*, 35, 148-157.
- Minnen, A., & Kampman, M. (2000). The

- interaction between anxiety and sexual functioning: A controlled study of sexual functioning in women with anxiety disorder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5, 47-57.
- Mintz, L., & Betz, N.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185-195.
- Palace, E., & Gorzalka, B. (1990). The enhancing effects of anxiety on arousal in sexually dysfunctional and functional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403-411.
- Peplau, L., Rubin, Z., & Hill, C. (1977). Sexual intimacy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 33, 86-109.
- Reissing, E., Laliberte, G., & Davis, H. (2005). Young women's sexual adjustment: The role of sexual self-schema, sexual self efficacy sexual aversion and body attitudes.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4, 77-85.
- Richards, M., Boxer, A., & Petersen, A. (1990). Relation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ertal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Rocque, C., & Cioe, J. (2011). An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sexual avoidance. *Journal of Sex Research*, 48, 397-408.
- Rosen, R., & Leiblum, S. (1995). Treatment of sexual disorders in the 1990s: An integrated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877-890.
- Rosen, J., Srebnik, D., Saltzberg, E., & Wendt, S. (1991). Development of Body Image Avoidance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3, 32-37.
- Staples, J., Rellini, A., & Roberts, S. (2012). Avoiding experiences: Sexual dysfunction in women with a history of sexual abus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1, 341-350.
- Walser, R., & Hayes, S.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oretical and applied issues. In V. Follette & J. Ruzek (Eds.),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for trauma* (2nd ed.), (pp. 146- 172), New York: Guilford.
- Wiederman, M. (2000). Women's body image self-consciousness during physical intimacy with a partner. *Journal of Sex Research*, 37, 60-68.
- Wiederman, M. (2012).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ing. *Encyclopedia of Body Image and Human Appearance*, 1, 148-152.
- Wiederman, M., & Hurst, S. (1998). Body siz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among young adult women: Relationships to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esteem. *Journal of Sex Research*, 35, 272-281.
- Wincze, J., & Carey, M. (1991). *Sexual Dysfunction: A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Woo, J., Brotto, L., & Gorzalka, B. (2011). The role of sex 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women's sexual desir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0, 385-394.
- Yamamiya, Y., Cash, T., & Thompson, J. (2006). Sexual experiences among college wome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eneral versus contextual body images on sexuality. *Sex Roles*, 55, 421-427.
- Yost, M., & Zurbriggen, E. (2006). Gender differences in the enactment of sociosexuality: An examination of implicit social motives, sexual fantasies, coercive sexual attitudes, and aggressive sexual behavior. *Journal of Sex Research*, 43, 163-173.

<부록 1> 부정적 신체상 척도의 기술 통계치 및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M (SD)	문항- 총점 상관	요인	
			이성과 만남 회피 부하량	성행위 회피 부하량
11.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어 이성과 일대일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다.	2.80 (2.52)	.70	.776	.504
6.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성들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편이다.	2.77 (2.40)	.67	.764	.460
17. 외모에 자신이 없어 일대일로 대면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편이다.	2.25 (2.24)	.68	.763	.490
13. 내 외모는 이성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할 정도로 매력이 부족하다.	2.58 (2.34)	.65	.758	.416
15. 외모에 자신이 없어 이성을 소개받는 자리에는 나가고 싶지 않다.	2.67 (2.41)	.66	.722	.475
7.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현재의 내 외모가 불만족스럽다.	4.17 (2.61)	.63	.703	.426
3. 내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이성을 만나기가 두렵다.	3.28 (2.49)	.62	.660	.456
1. 내 외모는 성적으로 매력적인 편이다.	4.31 (2.26)	.34	.455	.148
10. 나는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를 노출하는 것이 싫어서 이성과의 성관계를 회피한다.	2.52 (2.46)	.66	.442	.863
14. 나의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를 노출하는 것이 싫어서 이성과의 성관계가 걱정된다.	2.65 (2.62)	.67	.472	.840
8. 나는 나의 성적인 신체부위(예: 성기, 유방 등 성기관 포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성과의 성행위를 피하는 편이다.	2.20 (2.38)	.53	.323	.732
20. 신체적인 매력에 자신이 없어 성행위 시 가능한 한 신체 노출을 적게 하고 싶다.	3.27 (2.71)	.61	.483	.659
16. 성행위 시 나의 벗은 모습을 보면 이성 파트너의 성적 흥분이 줄어들 것 같다.	2.71 (2.42)	.63	.561	.578
5. 이성의 파트너에게 비춰지는 내 외모가 신경이 쓰여 성행위 시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	3.10 (2.67)	.53	.418	.577
9. 나는 외모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쓴다.	4.62 (2.72)	.52	.447	.515

주. 상기의 15개 문항 중에서 1번 문항만 역으로 채점하였음.

주. 본문에서 소개한 바처럼 문항분석과정에서 삭제된 5개 문항은 다음과 같았음.

2.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이성 앞에서는 위축되는 편이다.

4.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에 우선순위를 둔다.

12. 나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의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18. 나는 불만족스러운 외모 부위의 관리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19. 외모에 자신이 없어 또래의 이성이 한명이라도 있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주. 문항-총점 상관의 통계치는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것임.

<부록 2> 관계변화 불안 척도의 기술 통계치 및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i>M</i> (<i>SD</i>)	문항- 총점 상관	요인	
			관계 목적	관계 지속
			불안 부하량	불안 부하량
14. 이성친구와 사귀다가 성관계를 갖고 나면 상대방은 나를 성행위 파트너로만 여겨버릴 것 같다.	3.00 (2.68)	.55	.804	.397
2. 이성친구와 사귀다가 일단 성관계를 갖고 나면 나에게 대한 상대방의 관심이나 흥미는 더 줄어들 것 같다.	3.35 (2.71)	.40	.598	.226
1. 이성친구가 나와 사귀는 목적이 성관계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2.87 (2.62)	.38	.566	.211
3.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도 결혼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5.08 (3.35)	.35	.296	.686
5. 이성친구와 사귀다가 일단 성관계를 갖고 나면 상대방과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것 같다.	4.08 (2.74)	.30	.203	.518

주. 상기의 5개 문항 중에서 5번 문항만 역으로 채점하였음.